

세계기록유산 활용하기

홍덕용 저, 『세계기록유산 100% 활용하기』, 좋은땅, 2020

이정연(Lee, Jung Yeon)*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시끌벅적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국내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였다. 우리나라가 등재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일본이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등재 신청 대상에 포함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은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된 유산으로 그때 당시 역시 우리나라는 등재 신청에 반대하였다. 일본은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다른 근대사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7월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을 개선하라고 일본에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된 바는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기록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이슈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pale201@korea.kr).

를 만들기도 하였다. 2015년 10월 중국이 일본군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하자 일본정부는 2021년 세계에서 유네스코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다는 것으로 유네스코를 압박하여 ‘회원국이 반대하면 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하는 제도를 만들게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 14개 단체가 추진했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가 중단되었고, 현재 반대하는 일본으로 인해 사실상 등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난징대학살 기록물이나 위안부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유산 등재와 관련한 기준과 적용에 있어서는 논리가 같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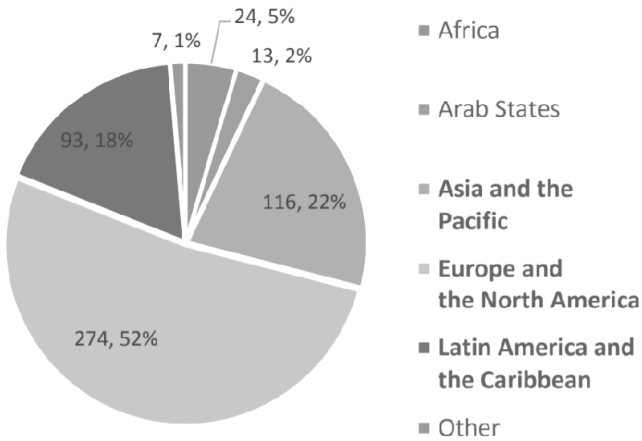
〈표 1〉 세계기록유산의 분포

Region	Number of inscriptions to the Register	Number of countries / organizations
Africa	24	13
Arab States	13	7
Asia and the Pacific	116	25
Europe and North America	274	42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93	33
Other	7	
Total	527 Registered items	118

※출처: STATISTICS OF Memory of the World(2018.12.)

〈표 1〉에 따르면 527건(공동등재 포함)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록물 중 274건 등재기록물(전체기록물의 반 이상)이 유럽 및 북미의 42개국에서 등재한 기록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을 지정하는데 공간적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분포현황 그래프를 통해 지역적으로 유럽과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그림 1〉 세계기록유산 등재지 분포도



※출처: STATISTICS OF Memory of the World(2018.12.)

물론,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등재 추진이 활발¹⁾해지면서 점차 기록유산의 분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 정치사회의 힘의 논리가 기록유산 등재에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난징기록물’과 우리나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 100% 활용하기(홍덕용 저)』는 앞서 언급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이슈들을 각각의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책은 크게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과 세계대전과 관련한 기록유산을 몇 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챕터인 ‘기록이란 무

1) 기록유산 등재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중요성 확인·확산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등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함.

엇인가'에서는 기록과 기억에 대한 짧은 글들로 일반인들이 기록이나 기억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으로의 위명업을 돕고 있다. 이어서 해외 세계대전과 관련한 기록유산을 크게 5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챕터가 분류되어 있다. 챕터별로 각 기록유산은 기록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 배경이 압축 설명되어 있다. 또한 기록유산별로 기록유산에 대한 개요가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소장기관 이미지와 홈페이지 스크린샷, 기록유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화 추천 등의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특히 해당 기록유산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더 알아보기'를 통해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기록을 찾는 방법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기록관리의 최종목적은 활용이라고 하면서 활용을 위해 기록유산에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유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심화 내용, 이슈 관련하여 생각해 볼거리 등 일반인들이 세계기록유산 홈페이지²⁾에서는 접할 수 없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보다는 기록유산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 등)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발전한다면 향후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기록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권력관계 등을 쉽게 인식하고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 것이다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World) 홈페이지. <http://en.unesco.org/programme/mow>